

## 중년기 성인의 부부친밀감과 노화불안과의 관계에서 자녀애착의 매개효과\*

임 재 연

김 지 현<sup>†</sup>

홍익대학교

본 연구는 자녀가 있는 중년기 성인들의 부부친밀감, 자녀애착과 노화불안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교환이론에 의하면 부부간, 부모-자녀 간에 교환자원의 부족과 가치 저하로 노화불안이 경험된다. 노화불안은 노년층뿐 아니라 노년을 대비하는 중년층에서도 나타난다. 노년기 교환자원 부족과 가치 저하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요소가 부부친밀감과 자녀와의 애착이다. 다양한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 부부친밀감과 노화불안과의 관계를 자녀애착회피가 매개한다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중년기 성인 36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부부친밀감은 자녀애착회피, 노화불안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자녀애착회피는 노화불안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부부친밀감과 노화불안과의 관계에서 자녀애착회피가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년기 성인의 부부친밀감이 노화불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부부친밀감이 자녀애착회피를 낮추어 간접적으로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노년기의 노화불안을 줄이며 안정적인 노년기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중년기 성인으로 하여금 부부친밀감, 자녀애착을 잘 형성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어 : 중년기, 교환이론, 노화불안, 부부친밀감, 자녀애착

\* 본 연구는 임재연(2013)의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중년기 성인의 부부친밀감과 노화불안과의 관계에서 자녀애착의 매개효과'를 수정·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 김지현,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121-791)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94 (상수동)

Tel : 02-320-1856, E-mail : mongsanga@hongik.ac.kr

과학 기술 및 의학의 발전으로 현대인은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긴 수명을 누리고 있다.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생명 공학으로 인해 머지않은 미래에 인간의 평균 수명은 100세를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대수명의 연장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긴 노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사람들의 노화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노화란 개인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신체적·사회적·심리적 변화와 기능저하에 적응하는 과정이다(이호선, 2005). 노화는 일반적으로 외형적이고 생리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심리적 측면까지 연령의 증가에 따른 모든 변화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긍정적이며 부정적인 변화 모두를 의미한다(Sigelman & Shaffer, 1995). 관점에 따라 노년기의 쇠퇴는 죽음을 향한 절망의 과정이기도 하고, Maslow가 말한 바와 같이 삶의 지혜와 통정성을 향한 영원한 성장의 과정일 수도 있다(송명자, 1995 재인용).

급속하게 늘어난 수명과 한국 사회의 안전망 부재로 인하여 노년의 삶은 불안하고 힘들게 느껴진다. 노인뿐 아니라 긴 노년을 앞두고 있는 중년 또한 이러한 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본의 전후 세대인 단카이(團塊) 세대가 노년 세대의 비중을 높이고 이들의 부양이 사회적 관심을 받았듯이, 우리나라도 전후 세대인 베이비부머 세대(50대)가 향후 노인 인구로 편입될 때 같은 경험을 할 것이다. 현재의 중년 세대는 앞으로 갑자기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사회적 안전망이 잘 관리해 주지 못할 것(이유신, 2005)이라는 불안을 피할 수 없다.

노화불안은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복합된 개념이다(Lynch, 2000). 노화불안은 노화와 불안의

합성어로 자신의 개별적인 노화과정과 관련된 두려움, 과정으로서가 아닌 상태로서 늙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늙어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한다(Warkins, Coates, & Ferroni, 1998). Lasher와 Faulkender(1993)는 노화불안을 노화과정과 관련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인한 불안 상태로 보았으며, 다면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노화에 대한 태도를 부분적으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노화에 대한 불안은 개인에게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며, 향후 긴 노년기를 지내야하는 중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년기는 신체적·생물학적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로 여성은 폐경을 경험하고, 남성은 호르몬의 내분비 불균형으로 노화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과 두려움이 늘어나게 된다(정민승, 임진영, 이지혜, 2006). 또한 인생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본질적 자아에 대한 성찰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이며, 사회적으로 절정기를 경험하였으나 더 이상의 성취보다는 하강과 은퇴를 감지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김명자, 1989). 중년기는 샌드위치 세대(Hagestad, 1982)로 부모역할과 자녀역할을 함께 해야 하는 이중 책임이 주어지며, 직업주기에 있어서도 재조정이 필요한 변화의 시기(정민승 외, 2006)이고, 성장한 자녀가 가정을 떠나는 시기(장휘숙, 2000)이기도 하다. Erikson은 사회적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 중년기를 전생애 주기 8단계 중 7단계인 생산성과 자아탐닉의 단계(40~50대)로서 부모가 되어 다음 세대를 낳고 직업에서 성취를 통해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시기로 보았다. Jung은 40세경에 개별화가 이루어져, 보다 명확한 자아정체감을 획득하며, 자신의 내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균형 있는 생활을 창출한다고 하였다(김명자, 1989

재인용).

연령 면으로 볼 때 중년기는 35~45세 사이에 시작하여 60~65세 사이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정옥, 김정숙, 2009; 김명자, 1998; 김양이, 이채우, 2008; 김주성, 2011; 최성재, 2009). 하지만 수명의 연장으로 30대 후반을 중년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시각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40세 이상부터 국가가 적용하는 노령 시작 시기인 65세 미만을 중년 또는 중년기로 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년 세대는 산업화의 주역이자 수혜를 받은 세대로 그 이전 세대에 비해 좀 더 풍족한 환경에서 성장하였으며, 교육의 혜택 또한 많이 받은 세대이다. 이러한 수혜는 미래의 생활에 대한 높은 수준의 욕구를 낳아서, 경제적 안정과 사회 정서적인 관계망, 신체 관리에 대한 필요성에 관심을 갖게 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과 경제적 수준으로 보다 높은 삶의 질과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안정신, 강인, 김윤정, 2009). 또한 중년 세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부모 세대가 그 뒷세대에게 한 노인 공경을 목격하며 자라 전통적인 가치관을 많이 내면화한 세대이면서, 급속한 서구화로 자식들에게는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세대이기도 하다. 지금의 중년세대는 부모를 모시고 산 마지막 세대(송양민, 2010)이지만, 자신의 노년을 자녀에게 의존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이들의 노화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증가로 실제 노인의 삶에 대한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노화에 대한 연구(박상철, 2007) 뿐 아니라, 노화척도 개발(안정신 외, 2009), 잘 늙어가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장휘숙, 2007), 그리고 노화 준비(고정옥, 김정숙, 2009) 등 현재

노년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노인 못지않게 노년기 삶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중년의 노화불안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중년의 노화불안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중년기 성인은 단일 특성을 지닌 동질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특성을 지니는 이질집단이라는 점이다(김명자, 1998). 청소년기 자녀가 대부분인 40대에 비해, 50대 및 60대는 자녀가 결혼 등으로 독립해 나가는 시기이므로 이들의 부부관계 및 자녀와의 관계는 40대와 다를 수 있다. 또한 중년기 후반으로 갈수록 사회·경제적 활동이 급속히 줄어들고 가족관계의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여성의 경우 대개 48-52세 사이에 폐경을 경험(박영주, 구병삼, 강현철, 천숙희, 윤지원, 2001)하면서 '늙어감에 대한 슬픔(윤정화, 한재희, 2013)' 등의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게 된다. 폐경이라는 생리적 현상을 경험하는 여성과는 달리 남성의 경우 갱년기가 완만하게 나타나지만 갱년기 경험을 시작하는 연령은 주로 50대 이후로 보고되고 있다(김정희, 이영주, 이순희, 2003). 따라서 노화불안과 관련하여 중년층에 대해 연구할 때 50대를 전후하여 연령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리주의 고전경제학에서 인간은 모든 유용한 선택지(choice)를 고려한 뒤 타인과의 거래에 있어 자신의 비용을 극소화하고 이익이나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선택을 추구한다고 한다(Klein & White, 2000). 교환이론(exchange theory)은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과정에 합리적, 경제적인 모델을 적용하여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Blau, 1964; Homans, 1961). 현대의 교환이론은

물질적 교환관계뿐 아니라 비물질적·상징적 교환관계도 포함하고 있다. 교환관계의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게 되는 교환보상물을 교환자원이라고 한다(최성재, 장인협, 2010). 교환자원에는 돈이나 물질 등과 같은 유형의 자원뿐 아니라, 지위나 미모·사랑·애정·지성·젊음·재능·권력 등과 같은 무형의 것들도 포함된다(장휘숙, 2012; 한국가족관계학회, 2002).

교환이론가들은 현대사회에서 노인의 지위 약화는 교환자원의 약화와 관련된다고 보았다. 노인이 지닌 교환자원 부족(경제력, 역할상실)과 교환자원의 가치저하(노인의 경험, 지식, 기술의 낙후)는 노인의 교환관계 형성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의존성을 증가시키고, 권력의 약화를 초래하여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다. 노인은 교환자원의 부족과 가치 저하로 자녀들과의 교환관계에서 열세에 놓여 의사결정과정에서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자녀들로부터 소외되고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한국가족관계학회, 2002). 교환이론을 최초로 노인문제에 적용한 사람은 Dowd(1980)인데, 그는 노인의 지위가 혈연이나 전통에 의해 부여되기 보다는 젊은 세대와의 상호호혜의 원칙으로 획득되는 경향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김명자(1990)는 배우자 선택, 결혼의 안정성, 부부 권력관계, 가족원 응집력, 노인문제 등으로 교환이론의 폭넓은 적용가능성을 언급하였으며, Nyel(1980)은 교환이론이 가족생활뿐 아니라 인간의 행동 설명에 거의 제한 없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서구에 비해 가족친화적인 경향이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족은 직접·간접적으로 전 생애에

걸쳐 개인의 삶과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김도환, 2001). 유교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노년층은 장자 중심의 문화에서 자녀에게 노년을 의지하는 성향이 보다 강하고, 정서적·심리적 측면에서도 자녀에게 크게 의존한다. 이러한 경향은 여전히 전통적 가치관을 내면화한 중년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년층은 자신의 노년을 자녀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노년층보다 낮아, 중년기 성인의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노인세대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중년층의 가족관계와 노화불안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외환위기 이후 40대 중반부터 퇴직하는 경향이 심화되었다(윤지은, 전해정, 2009). 중년기 중·후반에는 사회 경제적 활동의 감소와 더불어 경제적 수입뿐 아니라 인간관계 폭이 좁아지면서, 가족관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가족관계를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안지선, 전해정, 2012). 가족관계는 부부관계·부모자녀관계·형제자매관계·조부모 손자녀관계 등 다양하지만, 중년층의 가족관계를 고찰할 때 이들의 보편적인 가족구조가 핵가족임을 고려하여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부부관계·부모자녀관계는 인간관계 가운데서 다른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그 중 부부관계는 자녀 독립 이후에도 일생 동안 유지되는 관계로, 핵가족이 보편화 되면서 중년기 중·후반기로 갈수록 부부끼리 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부부관계는 점차 가족 내 핵심적인 관계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교우관계·직장동

료관계 등이 소원해지면서 부부간의 친밀감이 개인의 심리적 안정에 중요한 요소로 주목 받고 있다(김명희, 2006). 친밀감이란 두 사람간의 가깝고도 밀접한 느낌(이경희, 1995)으로, “상호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두 사람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밀접함과 헌신의 정도”(Moss & Schwebel, 1993)를 의미한다. Erikson에 의하면 타인의 한계와 단점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인간 상호간의 차이점과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친밀감이 획득된다고 한다(장휘숙, 2000 재인용). 정현숙(2001)은 부부관계 만족이 부부친밀감을 필요로 하며, 배려와 존중이 부부친밀감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Moss와 Schwebel(1993)도 서로 간의 밀접함에 더하여 헌신을 친밀감의 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친밀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형성되는 정서적 밀접함뿐 아니라 배려와 존중 등 서로 주고받는 측면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노년기로 갈수록 교환자원 부족과 가치 하락으로, 부부친밀감과 같은 심리적인 자원 교환이 더 중요해진다. 노년기에는 성장한 자녀가 독립하고, 친구나 형제자매 등 지인들의 상실로 부부 상호간의 의존도는 더 커지는 시기이다. 일반적으로 결혼만족도 수준은 U자형을 그리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 독립 시기에는 다시 증가한다고 한다(정옥분, 2000). 자녀를 출가시킨 노년층은 부부만 남은 상황에서 서로에게 의지하여, 노년세대의 부부관계는 다른 세대보다 더 밀접한 것으로 보인다(임주영, 전귀연, 2004). 반면 젊은 시절부터의 부부 갈등은 친밀감 형성을 어렵게 하여 노년기에 부부 소외감과 고립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친밀감이 떨어지는 부부는 자원 상실이 예견되는 노년기의 외로움에 대한 불안이 훨씬 더

커지리라 생각한다. 교환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신체적, 정신적 쇠퇴와 함께 교환자원의 하락으로 인하여 노화불안을 피하기 어렵다. 다른 자원의 상실보다 특히 애정과 같은 부부간 친밀감의 감소는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의 상실이라 할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는 가정의 중심축이자 인간이 최초로 경험하게 되는 관계이다(김지원, 2012). Bowlby(1958)에 의하면 애착은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 느낀 강한 정서적 유대관계로, 성인기의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로 사용되어 왔다(박은영, 황영훈, 2003). Ainsworth, Blehar, Waters와 Wall(1978)은 Bowlby의 애착연구를 발전·확장 시켰으며, 낯선상황(Strange Situation) 실험을 통해 애착유형을 나누었다. Brennan, Clark와 Shaver(1998)는 애착분류 체계를 성인의 친밀한 관계에 적용하였다. 성인애착이란 성인이 자신에게 신체적·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특정한 사람들(연인, 부모, 배우자)과 근접성과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안정적 경향성이다(Main, Kaplan, & Cassidy, 1985). 또한 Brennan 등(1998)은 애착 행동 전략(attachment behavioral strategy)을 기준으로 성인 애착을 불안(anxiety)과 회피(avoidance)의 2차원으로 나누었다. 2가지 차원 중 애착불안 차원이 높은 성인은 타인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경향이 있고, 대인관계에서 의존적이고 불안해하고 거부당하는 두려움이 심하며(정여진, 안정신, 2012), 상대방을 과잉통제하려는 경향을 나타내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박영주, 이영호, 2010). 그리고 애착회피 차원이 높은 성인은 애착 관련 사고나 정서에 과도하게 방어적이어서 친밀감, 자기개방, 감정표현, 정서적 의존을 자제하는 성향을

보인다(안명희, 2010). 불안과 회피의 두 요인 간 상관은 매우 낮아(Brennan et al., 1998), 상호 독립적인 두 요인이 애착유형을 설명하고 있다(김성현, 2004). 선행연구(정여진, 안정신, 2012)에서 자녀애착회피는 노화성숙도에 대하여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나, 자녀애착불안은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중년기는 자녀들이 성장하여 부모를 떠나는 시기이지만, 부모와의 애착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녀는 부모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서적으로 독립해야 하고, 부모 또한 자녀와 계속 접촉하고 연결되기를 바란다. 이때 부모 자녀 사이에서 상호 도움이 불가능하고 일방적인 관계가 된다면 관계에서의 애착은 점차 약화된다(장휘숙, 2012). 중년기 부모는 자녀와 신뢰를 형성하며 미리 자원을 투입하고, 그 후 노년기가 되었을 때 자신의 자녀가 부모에게 물질적 자원, 심리적 지지를 제공해줄 것이라 기대한다. 즉 자녀와의 친밀성을 바탕으로 미리 자원을 투입하고 나중에 돌려받고자 한다. 이미 자원은 투입이 되었는데, 돌려받지 못 할 경우 부모의 마음속에 불안과 분노가 생길 수 있다.

성인발달을 연구한 Vaillant(2010)는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지를 결정짓는 것은 인간관계의 힘이라고 하였다. 그는 결혼생활과 자녀와의 친밀 정도를 포함한 사회적 유대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 개인이 일생을 통해 형성하게 되는 가족관계인 부부관계와 부모자녀와의 관계는 서로 밀접한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김정희, 1992; 윤만석, 1992). 부부관계는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부부관계에서 불화가 있는 경우 자녀와의 갈등이 높고(정화용, 2000), 부부관계가 조화로울 때 자녀와의 관계도 수용적이 된다고 한다

(조영란, 1994; 홍은영, 2010). 부부갈등 정도가 심할수록 자녀양육에도 소홀하게 되어 부모자녀관계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되고(장선웅, 정혜정, 이주연, 2011) 자녀와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기 힘들다(원자희, 2005). 부부간 불화가 있고 갈등이 심한 환경에서 양육된 아이들은 부모와 병리적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박영림, 최해림, 2002; 정옥분, 정순화, 황현주, 2009). 이런 경우 부모는 노년기에 자녀로부터 자원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고, 노년기의 자원교환에 대한 불안이 증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부부관계는 노화불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부부관계는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자녀관계는 부모의 노화불안과 관련 될 것이다. 즉, 부모-자녀관계는 부부관계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중년기 부부는 상호간 친밀감을 주고받으며 다른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도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며, 자녀와는 애착을 통해 시간을 두고 자원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부부친밀감과 자녀애착이 있는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노화불안은 감소할 수 있다. 여기서 부부친밀감과 자녀와의 애착은 다른 교환자원이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부족하거나 사라졌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 자녀와의 건강한 애착은 노년기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자녀의 지원 및 지지를 받으며 살아갈 가능성을 높인다. 만약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부모와 자녀는 자원을 서로 주고받으며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어렵게 된다. 부부친밀감과 자녀애착은 노년기에 삶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게 하고, 노화불안을 줄이는 요인이 되리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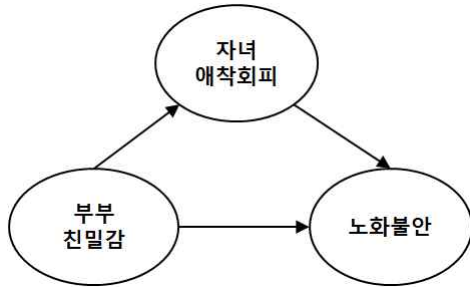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교환이론 및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와 노년기 불안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즉 부부친밀감과 자녀애착회피가 중년기 성인의 노화불안과 관련이 있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부부관계가 부모자녀관계에, 그리고 부모자녀관계가 노년기 부모에 대한 지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논의를 고려할 때, 부부친밀감이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두 변인의 관계를 자녀애착회피가 매개하는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더불어 연령에 따른 가족 관계의 중요성 인식이 달라짐을 고려할 때, 이 연구에서 가정된 변인간의 관계가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세워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목포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임의표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도서관과 관공서 이용자, 문화센터와 체육센

터 이용자, 회사원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자기보고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총 460부를 배부하여 390부가 회수 되었으나, 연구대상의 조건에 충족되지 않았거나 미응답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36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성 46.7%, 여성 53.3%이고, 연령은 40대 58.2%, 50대 36.5%, 60에서 64세까지 5.0%로 평균 연령은 48.42세이다. 응답자의 학력은 중년 대상인 이유리(2009)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고졸 이상으로 나타났다. 정여진 등(2012)의 노인 대상 연구에서는 초졸(11.6%)과 중졸(24.6%)이 작지 않아, 본 연구대상자들의 학력은 노인들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종교는 기독교가 43.7%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의 한 달 평균소득은 대부분 삼백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 측정도구

#### 부부친밀감

부부관계를 나타내는 부부친밀감을 측정하기 위해 정현숙(2001)이 개발한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를 정여진 등(2012)의 연구에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결혼만족도 척도는 결혼생활의 총체적이고 전반적인 측면에 관한 주관적인 평가로, 부부의 정서적인 측면을 잘 나타내고, 깊이 있는 관계를 적절하게 포착하였다(정여진, 안정신, 2012).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정현숙의 한국형 결혼 만족도 3개 하위차원 중 정서적 차원을 나타내는 친밀감에서 존중 8문항과 배려 8문항,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친밀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존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N=364)

특 성	구 분	빈도	(%)	특 성	구 분	빈도	(%)
성 별	남자	170	(46.7)	연 령	40대	212	(58.2)
	여자	194	(53.3)		50대	133	(36.5)
교육수준	중졸이하	15	(4.1)	60-64세	18	(5.0)	
	고 졸	112	(30.8)	결측	1	(0.3)	
	대 졸	185	(50.8)	평균	48.42		
	대학원 이상	51	(14.0)	허약	11	(3.0)	
	결측	1	(0.3)	주관적	보통	145	(39.8)
종 교	불 교	64	(17.6)	건강상태	건강	207	(56.9)
	기독교	159	(43.7)	결측	1	(0.3)	
	천주교	32	(8.8)	300만원미만	39	(10.7)	
	무 교	101	(27.7)	300-400대	140	(38.4)	
	기 타	7	(1.9)	500-천만원미만	151	(41.5)	
	결측	1	(0.3)	천만원 이상	33	(9.1)	
				결측	1	(0.3)	

중과 배려 문항의 신뢰도( $\alpha$ )는 .943과 .921이며, 전체 신뢰도( $\alpha$ )는 .959이다.

### 자녀 애착회피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Brennan 등 (1998)이 제작(친밀관계경험 검사: ECR)하고, Fraley, Waller와 Brennan(2000)이 개정한 성인 애착 유형검사(ECR-R: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를 김성현(2004)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여진 등(2012)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문항에서 대상을 '자녀'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의 2개 하위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요인 간 상관은 매우 낮아(Brennan et al., 1998) 각 하위 요인은 상호 독립적으로 볼 수 있다(김성현,

2004). 선행연구(정여진, 안정신, 2012)는 자녀 애착회피 요인을 성공적 노화에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하였고, 자녀애착불안은 성공적 노화에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애착회피(Avoidance) 요인만을 연구모형에 포함하였다. 애착회피는 친밀함에 대한 꺼림이나 불편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친밀관계가 낮은 불안정한 애착패턴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alpha$ )는 .870이다.

### 노화불안

노화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Lasher와 Faulkender(1993)가 개발한 AAS(Anxiety about



Aging Scale)를 김숙남, 최순옥, 신경일과 이정희(2008)가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선행 연구(김숙남 외, 2008; Lasher & Faulkender, 1993)에서 두 번째 하위요인과 나머지 세 요인간의 상관성이 상당히 낮았으며, 본 연구의 자료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었다. 또한 각 요인 점수를 통해 내적 일치도를 살펴보니 두 번째 요인을 제거할 경우 내적일치도가 현저하게 상승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요인을 제외한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신체적 외모에 대한 두려움, 심리적 불안정에 관한 3개의 하위요인만을 노화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나이가 들면서 무엇인가를 잃거나 떠나버리는 것에 대한 불안을 말한다. 친구관계, 신체적 건강, 의사결정권, 타인으로부터 받는 존경이 여기에 속한다. 신체적 외모에 대한 걱정은 노화로 인한 신체적 변화에 따라오는 두려움을 말한다. 심리적 불안정은 좀 더 개인적이고 내적인 문제에 관한 것으로 개인이 노화에 좀 더 긍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당면해야 할 심리적 과제를 나타낸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노화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 $\alpha$ )는 .802, .794, .756이고, 전체 신뢰도( $\alpha$ )는 .826이다.

#### 자료분석

본 연구는 중년기 성인의 부부친밀감과 노화불안 간 관계가 자녀애착회피에 의해 매개되고 있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 t-test

는 SPSS 18.0을 사용하였고, 각 변인들 간 구조모형은 AMO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Bootstrapping method'를 사용하였다.

## 결 과

###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정규성 검증

본 연구를 위해 활용한 자료가 구조모형을 검증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그리고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알아보았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변인들의 왜도는 절대값이 3을 넘지 않고, 첨도 또한 절대값 10을 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정규성이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구조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각 측정변수들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모형들의 적합도, 요인부하량을 구하였다. 일반적으로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r^2$ 의 유의확률(p-value), TLI, CFI, RMSEA 등을 많이 사용하는데,  $r^2$ 의 유의확률(p-value) >.05, TLI >.90, CFI >.90, RMSEA <.08(또는 .10)이면 수용할 수 있다(이학식, 임지훈, 2008). 본 연구에서의 적합도 지수는 표 3과 같다.  $r^2$ 은 유의하지 않지만, 다른 지수들은 수용할 만한 수준이므로 본 연구에서의 측정모형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표 2. 부부친밀감, 자녀애착회피 및 노화불안의 일반적인 경향 (N=364)

측정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최소값	최대값	
부부친밀감	존중	2.74	.73	-.44	.49	0	4
	배려	2.70	.73	-.63	.95		
자녀 애착 회피	3.13	.88	-.01	.14	1	7	
노화불안	상실에 대한 두려움	1.81	.69	.12	-.17		
	신체적 외모에 대한 걱정	1.57	.73	-.05	-.29	0	4
	심리적 불안정	1.46	.65	.34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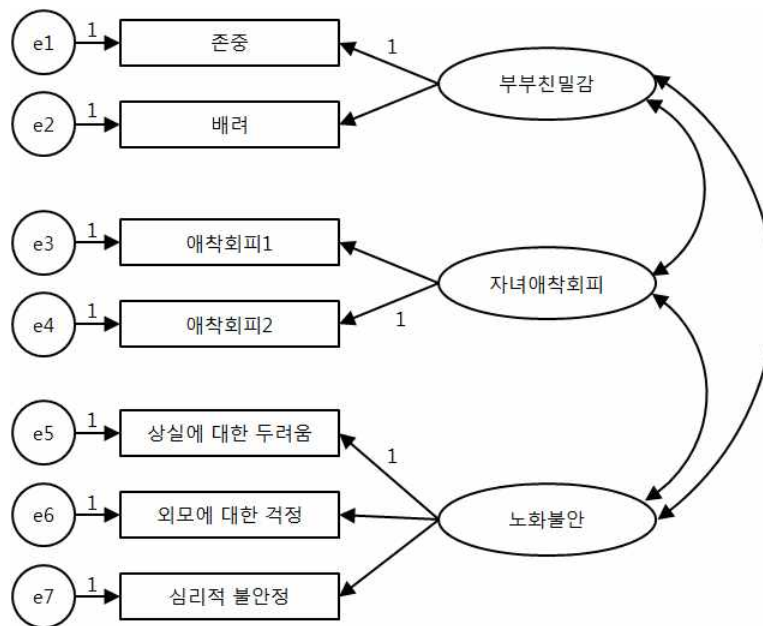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chi^2(df)/p$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43.486(11)/.000	.933	.965	.090(.063 - .119)

요인은 표준화 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문항 내용이 노화불안을 나타내는 심리적인 상태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측정 변인으로 포함되었다.

변인들의 상관관계

표 4는 측정모형의 표준화회귀계수를 추정  
한 결과이다. 노화불안 변인의 심리적 불안정

부부친밀감, 자녀애착회피, 노화불안의 상관

표 4.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검증 결과

잠재변인	측정변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S.E.
부부친밀감	존중	1.000	.918	-
	배려	.976***	.898	.112
자녀애착회피	회피1	.898***	.827	.125
	회피2	1.000	.872	-
노화불안	상실에 대한 두려움	1.000	.633	-
	신체적 외모에 대한 걱정	1.019***	.907	.163
	심리적 불안정	.243	.323	.044

\*\*\* $p < .001$

표 5. 변인간 상관분석 (N=364)

변 수	1. 부부 친밀감	2. 자녀애착 회피
2. 자녀애착회피	-.277**	
3. 노화불안	-.230**	.274**

\*\* $p < .01$

관계를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부부친밀감은 자녀애착회피, 노화불안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친밀감이 좋을수록 자녀애착회피는 낮게 지각하고, 노화불안도 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애착회피는 노화불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녀와 애착이 잘 형성된 사람

일수록 노화를 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5 참조).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분석,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RMSEA 값이 비교적 높으나 수용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며 CFI, TLI 등의 적합도 지수는 비교적 양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표 7, 그림 3 참조).

구조모형의 직·간접 효과와 총효과는 표 8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외생변수인 부부친밀감과 내생변수인 노화불안 간에 매개효과(간접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표 6.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chi^2(df)/p$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연구모형	43.486(11)/.000	.933	.965	.090(.063 - .119)

표 7. 최종모형의 각 잠재변인들의 경로계수 (N=364)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S.E.	C.R.
부부친밀감 → 자녀애착회피	-.391***	-.277	.089	-4.400
자녀애착회피 → 노화불안	.079**	.229	.025	3.138
부부친밀감 → 노화불안	-.082*	-.168	.032	-2.543

\*\*\* $p < .001$ , \*\* $p < .01$ ,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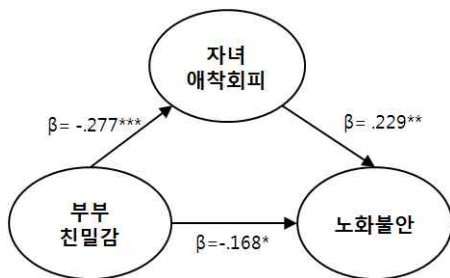


그림 3. 매개변수 경로모형에서 각 효과의 크기

'Bootstrapping method'를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이 방식에서는 간접효과의 상한 값과 하한 값이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낸다. 부부친밀감에서 자녀애착회피를 경유하여 노화불안으로 가는 경로에서 간접효과는 -.063이며 95% 신뢰수준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한편 노화불안에 대한 부부친밀감의 직접효과도 유의하여 자녀애착회피는 부부친밀감

과 노화불안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집단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경로별 동일성 제약을 가했을 때, 그리고 전체 경로에 동일성 제약을 가했을 때 모두 기저모형과 적합도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본 연구에서 연령은 조절 작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자녀가 있는 중년기 성인에게 부부친밀감과 자녀에 대한 애착회피가 앞으로 다가올 노년기의 불안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

표 8. 구조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분해 (N=364)

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부친밀감	자녀애착회피	-.277**	.	-.277**
부부친밀감	노화불안	-.168*	-.063*	-.231**
자녀애착회피		.229**	.	.229**

\*\* $p < .01$ , \* $p < .05$

펴본 결과, 본 연구 대상자들의 부부친밀감 수준(2.72-4점 만점)은 중간값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애착회피(3.13-7점 만점)는 중간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노화불안(1.61-4점 만점)은 중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연령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보면 40대 집단과 50대 이상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자녀애착회피에서만 나타났다. 즉 연구대상자 중 50대 이상의 중년 성인은 40대보다 자녀애착회피를 더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의 통제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고, 부모의 도움이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향이 짙어지는 시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년기는 자녀에 대한 도움이나 통제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기(김명자, 1989)로, 성인 자녀의 자기주장이나 비판적 태도는 중년 부모에게 자신의 가치관이 거부당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이 결과는 부모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16세 이상의 자녀와 갈등이 낮아진다는 Umberson(1996)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둘째, 중년기 성인의 부부친밀감, 자녀애착회피, 노화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부친밀감은 자녀애착회피와 노화불안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부부친밀감이 좋을수록 자녀애착회피는 낮아지고, 노화불안은 덜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녀애착 회피는 노화불안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자녀와의 애착회피 수준이 낮을수록 노화불안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자녀와 애착이 잘 형성된 사람일수록 노화를 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중년기 성인의 부부친밀감과 노화불

안과의 관계에서 자녀애착회피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녀애착회피는 부부친밀감과 노화불안과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 성인의 부부친밀감은 노화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부부친밀감이 좋을수록 자녀애착회피가 떨어져, 그로인해 간접적으로 노화불안이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부관계는 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만한 부부관계는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여 부모자녀관계를 애정적·수용적으로 만드는 반면, 부부갈등 정도가 심할수록 자녀양육에도 소홀하게 되어 부모자녀관계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된다(장선웅 외, 2011; 정화용, 2000; 홍은영, 2010). 즉 부부간 갈등이 있어 부부친밀감이 낮으면 자녀애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 경우 노화불안에 대한 부부 갈등의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차단하려면 자녀애착을 안정적으로 형성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부는 법적인 관계로 이혼할 경우 친밀감이 상실된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는 핏줄로 이루어진 관계로, 소수의 절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관계보다 더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혼이나 사별 또는 다른 사유 등으로 부부친밀감을 개선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 자녀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부친밀감이 없거나 낮을 때라도 자녀와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된 경우라면, 부모는 자원이 빈약해지는 노년기에 자녀로부터 유형, 무형의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고, 이것은 노화불안을 감소시킬 것이다.

넷째, 부부친밀감과 노화불안간의 관계에서

자녀애착회피의 매개효과가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다집단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모형에서 연령은 조절변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연구 결과 부부친밀감은 자녀애착회피와 노화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자녀애착회피는 부부친밀감이 노화불안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중년기 성인의 부부관계와 자녀관계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교환이론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무형의 교환자원인 부부친밀감과 자녀애착이 노화불안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주어, 건강하고 성공적인 노화를 준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특히 부부친밀감과 자녀애착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년기에 이르기 전에 부부관계·부모자녀관계를 돈독히 하는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40세에서 64세를 중년기로 보았지만, 첫 자녀의 성장을 기준으로 설정된 가족생활주기 관점(Duvall, 1977)에서 보면 상이한 집단으로 나누어 질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자녀의 나이를 감안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대상자들을 임의 표집하여 실시한 것이므로 연구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종교 등 다양한 인구학적 계층을 대표하는 표집이 이루어지고, 여러 특성변인을 고려한 분석을 통해 같은 결과가 반복되는지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자녀애착회피의 간접효과가 유의하긴 하지만 효과 크기가 크지 않아 연구결과 해석 시 유의해야 할 것이다. 추후 연구를 통해 다양한 표집에서도 부부친밀감과 노화불안

간 관계에서 자녀애착의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및 교환 이론 등을 통해 각 변인 간 인과관계를 가정하고 횡단적 자료를 통해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변인 간 인과관계를 엄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종단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노화불안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정서적 측면에서만 파악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여섯째, 부부친밀감은 결혼만족도를 측정하는 척도 중 한 하위요인으로만 측정하여 이의 해석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한된 수의 문항을 사용함으로써 피험자의 응답 피로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부부친밀감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모두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노화불안 척도의 경우, 선행연구 및 본 연구에서 한 하위요인이 다른 하위요인과 낮은 상관을 보이거나 전체 척도의 내적 신뢰도를 감소시켜 최종 분석에서는 이 하위 요인을 제외하였다. 이를 통해 노화불안 척도의 일관성을 향상시켰으나 척도 제작자들이 노화불안과 관련하여 제안한 구성개념을 모두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 해석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노화불안에 대한 가족관계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중 핵심적 관계인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가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줄(정여진, 안정신, 2012)뿐 아니라, 중년기 성인의 경우 다가올 노화불안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부친밀감과 자녀에 대한 애착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중년기에 이른 사람들에게 부부관계·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관심을 보다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중년기의 노화불안은 다가올 노년기의 안정과 노화 준비, 성공적 노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 같은 노화불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가족관계를 확고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행해진 노화관련 연구는 경제적 측면과 신체적 노화에 주로 관심을 보였다. 본 연구는 경제적·신체적인 것뿐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관계적인 측면에서의 투자도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인적인 노력과 더불어 사회 정책적인 상담·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보급·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정옥, 김정숙 (2009). 중년여성소비자의 노후 생활 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5(3), 17-39.
- 김도환 (2001). 노인이 지각한 가족지지, 자아 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연구. 노인복지연구, 13(2001 가을), 113-114.
- 김명자 (1989). 중년기 연구. 파주: 교문사.
- 김명자 (1990). 교환이론적 관점에서의 가족학 연구에 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8(3), 147-160.
- 김명자 (1998). 중년기 발달. 파주: 교문사.
- 김명희 (2006). 중년기 기혼남녀의 부부친밀감과 부부의사소통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현 (2004). 친밀관계 경험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숙남, 최순옥, 신경일, 이정희 (2008). 노화불안 척도의 타당화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7(3), 292-301.
- 김양이, 이채우 (2008). 중년층의 노후준비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9, 55-82.
- 김정희 (1992). 중년여성의 적응과 일상적 스트레스 및 정서적 경험의 관계: 심리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4(1), 54-63.
- 김정희, 이영주, 이순희 (2003). 중, 노년 남성의 갱년기 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간호과학, 15(2), 31-38.
- 김주성 (2011). 중·노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이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지원 (2012). 한국적 부모자녀관계와 대학생의 자아분화의 관계: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상철 (2007). 노화란 무엇인가-인식전환과 장수시대.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 및 워크샵, 31-44.
- 박영림, 최해림 (2002).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부·모 애착, 부부갈등 지각 간의 관계.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3), 741-755.
- 박영주, 구병삼, 강현철, 천숙희, 윤지원 (2001). 한국 여성의 폐경연령, 갱년기 증상 관련 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7(4), 473-485.
- 박영주, 이영호 (2010).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우울경험양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2), 441-452.
- 박은영, 황영훈 (2003). 애착이론과 자아분화이론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 11(1), 155-177.
- 송명자 (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송양민 (2010). 6개 옛 명문고 베이비붐 세대 3500명 인생 추적-하. 주간조선(2010. 7. 28일자).
- 안명희 (2010).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정서와 심리적 통제의 매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867-885.
- 안정신, 강인, 김윤정 (2009). 한국 중노년 성인들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4), 225-245.
- 안지선, 전해정 (2012). 중년기 은퇴로의 전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성차: 가족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1), 65-85.
- 원자희 (2005). 어머니의 애착유형 및 부부의 갈등해결 방식과 자녀의 애착유형.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만석 (1992). 부부관계와 자녀의 건강 및 학업성적과의 관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정화, 한재희 (2013). 폐경기 중년여성이 경험하는 심리적 현상연구. 상담학연구, 14(4), 2195-2212.
- 윤지은, 전해정 (2009).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상태와 정신건강: 소득수준과 가족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노년학, 29(2), 743-759.
- 이경희 (1995). 부부간 친밀감 척도개발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4), 235-249.
- 이유리 (2009). 노인생애체험이 중년기 성인의 노화불안에 미치는 효과. 노인복지연구, 46(1), 193-214.
- 이유신 (2005). 중년기 남성의 생활불안과 노후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학식, 임지훈 (2008).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7.0. 과주: 법문사.
- 이호선 (2005). 노인상담. 서울: 학지사.
- 임주영, 전귀연 (2004).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배우자 유·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4(1), 71-87.
- 장선웅, 정혜정, 이주연 (2011).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경험과 부부친밀감이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학회지, 15(4), 93-111.
- 장휘숙 (2000). 인간발달: 전생애 발달심리학. 서울: 박영사.
- 장휘숙 (2007). 성공적 노화에 이르는 길-성공적 노화의 개념과 전략.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 15-25.
- 장휘숙 (2012). 성인발달 및 노화심리학. 서울: 박영사.
- 정민승, 임진영, 이지혜 (2006). 생애발달과 교육.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정영진, 안정신 (2012). 노인의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화간의 관계에 대한 자녀애착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32(1), 185-206.
- 정옥분 (2000). 성인발달의 이해: 성인·노인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옥분, 정순화, 황현주 (2009). 애착과 발달. 서울: 학지사.
- 정현숙 (2001). 한국형 결혼만족도척도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2), 205-224.
- 정화용 (2000).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영란 (1994). 부부의 갈등과 자녀의 학업성취도와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성재 (2009). 수도권 지역 중년기 이후 세대의 노후생활 인식과 노인에 대한 인식. 한



- 국노년학, 29(1), 329-352.
- 최성재, 장인협 (2010).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한국가족관계학회 (2002). *가족학 이론*. 과주: 교문사.
- 홍은영 (2010). *결혼만족과 부모-자녀 만족의 관계: 청소년자녀를 둔 학부모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Blau, P. M. (1964). *Exchange and Power in Social Life*. New York: J. Willey.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ed int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Dowd, J. J. (1980). Exchange rates and old people. *Journal of Gerontology*, 35(4), 596-602.
- Duvall, E. M. (1977).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5th ed.). Philadelphia: Lippincott.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350-365.
- Hagestad, G. O. (1982). Parent and Child: Generations in the family. T. M. Field, A. Huston, H. C. Quay, L. Troll, & G. E. Finley (Eds.), *Review of Human Development*. New York: Jone Wiley & Sons.
- Homans, G. C. (1961). *Social Behavior: Its Elementary Forms*. New York: Harcourt; Jovanovich.
- Klein, D. M., & White, J. M. (2000). 가족이론 [Family Theories]. (김종천, 조은정, 이하영, 성준모, 이정숙, 오수정, 최윤신, 이상, 김선숙, 이해경역). 서울: 대학출판사(원저는 1996년 출판).
- Lasher, K. P., & Faulkender, P. J. (1993). Measurement of Aging Anxiety: Development of anxiety about aging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7(4), 247-259.
- Lynch, S. M. (2000). Measurement and prediction of aging anxiety. *Research on aging*, 22(5), 533-558.
- Main, M., Kaplan, K.,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I. Bretherton and E. Waters (Ed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66-104.
- Moss, B. F., & Schwebel, A. I. (1993). Defining intimacy in romantic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 42(1), 31-37.
- Nye, F. I. (1980). Family Mini Theories as Special Instances of Choice and Exchange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3), 479-490.
- Sigelman, C. K., & Shaffer, D. R. (1995). *Life-span human development*. CA: Brooks/Cole Publishing Co.

- Umberson, D. (1996). Demographic Position and Stressful Midlife Events: Effects on the Quality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C. D. Ryff & M. M. Seltzer (Eds.), *The parental experience in midlife*, 493-53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Vaillant, G. E. (2010). 행복의 조건[*Aging Well*]. (이덕남역). 서울: 프런티어(원저는 2002년 출판).
- Watkins, R. E., Coates, R., & Ferroni, P. (1998). Measurement of Aging Anxiety in an Elderly Australian Popula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6(4), 319-332.
- 원 고 접 수 일 : 2014. 06. 02  
수정원고접수일 : 2014. 09. 10  
게 재 결 정 일 : 2014. 10. 14

## The Relation between Marital Intimacy and Anxiety about Aging for Middle-aged Adults: Mediational Effects of Attachment

Jae-Yeon Im

Ji-Hyeon Kim

Hongik University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marital intimacy and attachment toward children on anxiety about aging for middle-aged adults. For this research, the data from 364 people having a child were analyzed. The findings in the study showed the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marital intimacy and attachment avoidance to children and the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marital intimacy and anxiety about aging. Meanwhile, it was found that attachment avoidance to children positively correlates with anxiety toward aging. Additionally, attachment avoidance to children mediated the relations between marital intimacy and anxiety toward aging. Findings in the current study indicates that it is necessary for middle-aged adults to develop intangible exchange resources(i.e. marital intimacy and attachment to children) to reduce anxiety toward aging and prepare their stable older age.

*Key words* : middle-age, exchange theory, anxiety about aging, marital intimacy, attachment to children